

신불멸논쟁, 인과응보에 대한 이해 폭 넓혀

중국불교의 거사들(10)

남북조 시기 배불논쟁과 거사불교(2)

-신불멸(神不滅)논쟁과 거사들의 반론①-

불교의 중국전래 이후, 불교의 교의 가운데 중국인들에게 있어 가장 이해가 안됐던 부분은 '무아(無我)'와 윤회(輪廻)를 함께 설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윤회의 '주체(主體)'에 관한 문제였다. 이른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업보에 따라 삼세(三世)에 걸쳐 육도를 윤회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무아' 설과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또한 윤회의 주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한다면 현세의 악보(惡報)와 전생의 업인(業因) 사이의 인과(因果)관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불교인들은 중국전통의 '형신(形神)'관계에서 착안해 비록 '육체(形)'는 멸하지만 그 '신(神)'은 '불멸(不滅)'한다는 점을 제시해 그 모순을 해결하려 했다. 더욱이 불교 교의 가운데 윤회의 상태를 설명할 근거인 '식(識)'의 'vijñāna' (비지나나)를 '신(神)' 혹은 '식신(識神)'으로 번역해 '신불멸론'의 도출은 자연스러워 보이게까지 했다.

'신'이 불멸함을 주장했다. 그 후 해원 스님은 캐시미르지방에서 온 승려 승가제바(僧伽提婆)를 여산(廬山)으로 초청해 <삼법도론(三法度論)>을 번역하게 해 그의 '신불멸론'을 보다 깊은 이론적 근거를 갖게 됐다. <삼법도론>은 독자계(犢子系) 현주부(賢胄部)에 속하는 논서로 윤회 주체로서 '승의아(勝義我)'를 주장한다. 이에 해원 스님은 '승의아'와 '신(神)'을 연결시켜 <명보응론(明報應論)> <삼보론(三報論)> 등을 저술해 보다 체계적인 '신불멸론'을 완성했다. 특히 해원 스님은 '신'이 바로 윤회 주체이고, 만물을 생육시키며, 조화의 근원 등으로 표현했다. 나아가 해원 스님은 '열반'을 '신'의 '명신절경(冥神絕境)'이라고 하여 '신'을 열반의 근거와 당체(當體)의 지위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전통적인 중국철학, 특히 유가(儒家)에서는 '신불멸론(神滅論)'의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신불멸론'에 대한 반박은 오히려 불교의 승려



그림 · 김홍인

해원 스님 '신불멸론' 이론 정립·체계적 완성 '백흑론' '명불론' '달성론' 등 반론 계속 이어져

사실 윤회의 '주체' 문제는 부처님 당시부터 파파불교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일었던 문제다. 여기에서 그에 대한 자세한 논술은 생략하지만, 반대로 만약 실재성을 지니는 윤회 주체를 설정한다면 결코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이 끊임없이 윤회의 쳇바퀴에 맴돌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무아'를 설하고 '윤회'를 인정해 그를 벗어날 수 있는 불교가 오히려 '주체'를 설정해 '윤회'를 인정하는 다른 종교나 철학보다 훨씬 합리성을 지닌다. 중국에서 '신불멸론'이 가장 처음 나타나는 것은 후한시대 활동한 모승(牟融) 거사가 지은 <모자이후론(牟子理感論)>이다. <이후론>에서 거사는 '열반'을 '신불멸(神不滅)'의 상태로 묘사했다. 이 '신불멸' 이론을 보다 체계적인 이론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동진(東晉) 명승 해원(海遠) 스님이다. 그는 유명한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 제5권에서 형신(形神)의 관계를 불교 장자의 관계로 설정해, 불이 끊임없이 다른 나무로 옮겨 계속되는 것과 같이

로부터 나왔다. 송(宋)의 문제(文帝)에게 총애를 받아 '흑의재상(黑衣宰相)'으로 유명한 석해립(釋慧琳) 스님은 당시 불교의 폐해가 모두 '신불멸론'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를 비판하는 <백흑론(白黑論)>을 저술한다. <백흑론>으로 인해 당시 교단에서는 그를 승려 신분으로 불멸을 비방했다는 죄를 물어 교주(交州) 현재 광동과 베트남 지방)로 유배시키기로 결정했지만 황제가 사면해 처벌을 면했다. 그러나 <백흑론>은 당시 유가를 신봉하는 고위관료들에게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특히 형양태수(衡陽太守) 하승천(何承天)은 <백흑론>을 읽고 <보응문(報應問)>을 저술해 불교의 전체적인 인과응보에 대해 비판했다. <보응문>에서는 자연계의 현상을 열거하고, "살생(殺生)도 악보(惡報)가 없고, 복(福)을 받는 자도 선업(善業)의 과보가 아님"을 주장했다. 이러한 석해립과 하승천의 주장에 대해 불교 측에서의 반론은 중병(宗炳), 안연지(安延之), 류소부(劉

少府) 등의 거사들이었다. 중병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상당한 분량의 <명불론(明佛論)>을 저술했다. 거사는 여산 해원 문하의 백연결사(白蓮結社)에 참여한 인물로 해원 스님의 '신불멸론'에 대한 이해가 깊어 상당히 자세하게 '형(形)'과 '신'의 관계에 대하여 논증하고, 그것이 어떻게 인과응보를 형성하는가를 설명했다. 하승천이 중병 거사에게 보낸 편지인 <답종거사서(答宗居士書)>에서 "장작이 다하면 불은 소멸할 뿐인데, 어찌 불이 홀로 전해지겠는가?"라는 비판에 중병 거사는 그에 대한 화답인 <답하형양서(答何衡陽書)>를 통해 '불은 장작으로부터 나오지만, 신(神)은 형(形)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정신(精神)이 극(極)에 이르러 형을 초월해 홀로 존재한다. 형이 없이 신이 존재하는 것은 법신(法身)이 항상 존재함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한다. 여기에서 인식과 사상의 범위를 현재에 한정시키고 중시하는 유가와 삼세육도의 범위로 확대시키는 불교의 극명한 차이가 엿보인다. <명불론>의 반박에 하승천은 다시 <달성론(達性論)>을 지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生必有死), 형이 흩어지면 신은 멸한다(形散神滅)"는 '간달성론'의 논리 때문에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하승천은 <달성론>에서 자연현상으로부터 인간과 생물의 차별성을 강조해 인간은 축생과 동류할 수 없고, 따라서 축생을 포함하는 육도윤회를 받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런 하승천의 견해는 유가사상을 대변하

는 것으로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에서 비롯된 인간중심주의였다. 이에 대해 안연지 거사는 <석달성론(釋達性論)>을 저술해 반박했다. 안연지 거사는 시문(詩文)에 있어 사령문(謝靈運) 거사와 함께 논의될 정도로 남조(南朝)에서 손꼽히는 문인으로, 영가(永嘉) 태수와 광록대부(光祿大夫) 등 고위관직을 역임했던 귀족이다. 안 거사는 <석달성론>에서 바로 인간이 비록 우월하지만 '생명'과 '합식(合識)'을 지닌 점 때문에 '중생(衆生)'의 범주에 들어 있고, 그에 따라 인과응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상세하게 논증했다. 안연지 거사의 반론에 하승천은 다시 <답안광록(答安光祿)>을 지어 그를 비판했다. 하승천은 "인간은 모두 성인(聖人)·대덕(大德)으로부터 오상(五常)을 품어 받았는데, 어찌 축생과 같을 수 있겠는가?"라는 논리를 펼쳤고, 이에 안연지 거사는 다시 <중석하형양(重釋何衡陽)>을 저술해 반박했다. 특히 안연지 거사는 이 글에서 '성인'은 다만 '신명(神明)'을 갖추어 뛰어난 사유능력을 지녔을 뿐이지, 본질적인 생명이 있어서는 '성인'조차도 '중생'의 범주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결론까지 도출시켰다. 이런 안연지 거사의 반박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녔다. 특히 전통적으로 논하는 '성인'조차도 삼세를 윤회하는 '중생'의 범주에 속함을 논증시킨 것은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사유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중국불교, 특히 선종에서 등장하는 '깨달음'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는

가?' 하는 문제의 실마리가 안연지 거사로부터 나온 것으로도 보인다. 류소부 거사도 중병 거사와 같은 제목의 <답하형양서>를 지었다. 그는 이 글에서 인과응보에 대해 자연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인간사회의 인과관계를 확대시켜 논증했다. 류소부 거사의 특별한 점은 유가의 '예교(禮教)'의 발생과정을 역사적 관점으로 고찰해 그것이 결국 인과응보에 의하여 형성된 것임을 논증했다. 류소부 거사의 논증 역시 상당한 사상사적인 의의를 가졌다. 불교사상적 색채가 가득한 역사관으로 유가의 '강상명교'를 재조명했다는 점은 유가의 반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후 불교에 대한 반박을 전개하려면 반드시 교의의 역사적 조명을 통한 맹점을 잡아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석해립 스님과 하승천에서 비롯된 '신불멸논쟁'은 결국 당시 황제인 문제가 중병, 안연지, 류소부 등에 높은 평가를 내리며 일단락됐다. 이때 '신'의 '멸'과 '불멸' 논쟁은 다만 윤회 주체로서 업의 '인과응보'에 집중했다. 불교는 이 논쟁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불교의 '인과응보'를 다양한 측면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됐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인 불교와 유가의 사상투쟁으로 '신불멸논쟁'은 양무제(梁武帝)와 범진(范缜)에 의하여 재개됐다.

■ 김진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사) 부산파라미타 청소년 협회

총재 대성스님
부총재 정여스님 수불스님
사무총장 무관스님
협회장 백명숙 사무국장 이육태
고등부회장 박명택 중등부회장 손태석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330-9 부산불교진흥회 7층 파라미타
TEL 051)513-4306 / FAX 051)513-4307

한일불교문화 교류협의회 여성부

회장 백명숙(대일심)
부회장 박동희(만월심)
총무 남영희
재무 정지연
운영위원 박애순, 김명애, 정지연
해외협력부장 김애경
감사 이위교

■ 서울사무국 ☎02)720-1708 ■ 부산사무소 ☎051)818-3427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전함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박상

서원불교 ☎043-647-2378, 011-467-1472

천하대도 생노병사 일체를 다스리는 육경신도통 천이통 및 배꼽과 두뇌호흡으로 삼천궁녀를 거느리는 건강장수 도통 대법회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 경신수행으로 심신의 번뇌를 벗고 새로운 정신세계를 창조하여 막연 운명을 찾아 도통하여 미래를 창조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다스리는 수행정진으로 초능력자 일류 스승으로 도통군자 장수 비법으로 건강의 주인공 되소서. 이 기도는 한 번만 하여도 없어서 10년 동안 수행한 것과 같은 도를 얻는 것이다.

진인도통군자 제위 귀하를 타시통 대법회에 초대합니다. 삼라만상 생명의 근본은 마음자리이고, 마음자리의 근본은 심의 근본인 자시와 오시에 생명의 정만을 하는 날이 경신일인 것이고, 경신일날 천일통과 마음의 정만을 인하면 생물이든도가 되지 않고 한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경신도통법은 지구탄생과 더불어 사람에게만 하늘에서 내려진 도법으로 만세에도 천세에도 전하지 않았던 하늘과 땅에 감춰진 것을 금년 무자년부터 천용진인태일대사는 만천하에 전하는 바 이오니 경신도법에 전하는 것은 후천대도는 인간의 득도에 따라 천도는 드러나지 않게 지도는 움직이나 멸하지 않게 인도는 그 사람 그 자리가 아니고는 국적이나 인종이 아닌 자에게는 전하지 않느니라. 특히 욕심이나 빨리 배우고 사용하여 이득이나 취하고 영리를 취하는 자에게는 삼가할 지이다.

● 경신도통이란?? 자신의 주인공을 찾는 참선인 것이고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법이며 운을 받고 안되고 치료해도 안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제하는 수행법인 것이고 도통군자는 경신도통을 하여야만이 무불도통으로 초능력자가 되어 일류 스승으로 되는 것이다.

● 신장과 귀속들을 부러 말문과 글문과 도통군자들과 영통능력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 태음경과 육추경 주문으로 신장 귀속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룰 수 있는 특별비법인 것이다.

육경신 기도 중 이번 천이통 법회에는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불편하고 심신으로 고통하며 수족이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즉시 해원상생 도통하는 건강, 특별 기도 성취하는 천이통 기도인 것이다. 본 도량에서는 심신 수련을 하거나 수행할 도반이나 몸에 건강이 부족하여 수행할 인연자도 환영합니다. 당신을 무엇을 원하십니까?

● 천하제일의 건강 황제가 되어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건강장수 비법과 여자로서도 천하를 다스렸던 중국의 촉촉후후가 수행한 기법인 천하대도 기전 법인 배꼽과 두뇌로 숨을 쉬어 정신, 심신, 육신이 하나되어 일체의 병을 다스리는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마음의 병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육경신 수행법으로 만사형통하는 도통군자 되소서.

● 제2도장 태양의 집 - 도인과 진인을 초월하는 천하 도통 명수 수행지 계룡명당, 봉황산, 계두봉, 서출동유, 비산비야, 비승비승 수행처 정신, 심신, 육신의 수행도량 이곳의 지장 건강수를 마시어 고혈압, 당뇨, 살이 빠지고 오장육부가 편해지는 곳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259번지 ☎041)867-7763 / 016-239-3110

세계불교달마중 육경신 도통회 제2도장 태양의 집

● 입제 : 양력 2008년 5월 19일(음, 4월 15일 월) (해시)
● 해제 : 양력 2008년 5월 20일(음, 4월 16일 화) (해시)
02-821-6622, 821-7767, 016-239-3110
● 농협 029-01-167866 광대일(한영) (선착순 접수) 간편한 웃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에 하차. (버스 6513, 6514, 5711, 461, 153 이용)

웅 조 달 마 경 신 도 통 회
세 계 불 교 달 마 중 중 본 산